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교육의향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회장



농공단지 제도가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1983년 도입 이후로 제도적 틀의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관리 부재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노후와 인프라 부족, 인구의 감소, 지방의 소멸화 등 제도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24년도 말 전국의 농공단지는 14개 시도에 484개의 단지가 있고, 총 8369개 업체가 입주하여 15만3000명 이상이 고용에 종사하고 있다. 이제 농공단지는 과거의 '시골스럽다, 촌스럽다, 웬지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고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곳으로 변신하라는 시대의 명령을 받고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농공단지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농공단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화의 부족 내지는 실

패에 있으며 농공단지를 규율하는 독립 법제화가 미흡했다고 본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가 개입되어 업무별로 관장 부서와 권한이 중복적이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각 관련 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농공단지의 83%가 지방소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단지와는 별개로 농공단지가 지방을 소생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에서는 농공단지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포럼을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에도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규제완화 역할 부여, 농공단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 노후산단 대개조사업의 확대,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농

공단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가까운 농공단지관리사무소나 광역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살 수 있으며,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강국이 된다.

양극화의 위기, 수도권외의 과밀, 지방소멸 위기, 고령화의 가속화, 청소년 일자리 위기는 전국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을 소생시키고,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도권 중심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고, 지방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나라, 지방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한다.

더 이상 지방 살리기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을 살리는 첫 걸음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다.

社說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광주에 들어서야

문화가치 완성할 도시 유일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라권·강원권·경기 북부권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예고하면서, 광주·여수·전북 등 지역들이 분관 유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도 가장 먼저 포럼을 개최하고 전략을 구체화하며 유치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광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광주의 유치 논리는 분명하다. 첫째, 광주는 이미 25년 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준비해온 도시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축적된 노력의 결과가 지금의 조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세계 5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광주비엔날레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라는 상징성과 역량은 광주만의 독보적 자산이다. 미디어아트 분야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영역이기도 하다. 광주는 상대적

으로 덜 조명받은 미디어아트 분야를 보완할 최적의 후보다.

셋째,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함께 문화창·제작, 전시, 마케팅을 연결하는 '문화가치사슬'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다. 단순한 미술관 유치가 아니라 국가 문화생태계의 거점 완성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광주가 배출한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역사성과 지역 미술계의 지속적 역량도 분관 유치의 타당성을 높인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역 분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몰려있는 일극화 시대, 서울과 경기 등에 집중된 문화 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정부는 유치를 결정할 때 단순한 시설 여건이나 자치단체의 열의만 볼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차별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문화정책의 전략적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광주는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적합하며, 유일하게 전략적 타당성을 갖춘 도시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광주에 들어서야 한다.

서구,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반갑다

他 지자체 동참의지도 필요해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 달 30일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과 공동체 상생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서구의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자치단체가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를 통해 약 100일 동안 추진됐다. 서구는 지난 3월부터 상권 실태조사, 상인의 견수령, 구체적인 상권 범위 조정 등 실무 절차를 거쳐 모든 지역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상생모델을 완성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구 전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지만 서구는 음식점, 병원, 카페, 주유소, 미용실, 학원 등 생활 업종 전반으로 사용 가능 범위를 넓혔다. 서구 관내 1만 7000여 개 점포 중 가맹 제한 업종을 제외한 1만1400여 점포가 대상이 됐다. 혜택도 크다. 당장 소비자들은 골목형상점가 확대로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손님이 늘면서 상인들도 최근 10~20% 매출 증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골목상권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상인들의 반응이 반갑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서구는 골목형상점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광주·전남 지자체도 서구의 도전을 거울삼아 각 지역별 골목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골목이 곧 공동체의 뿌리'라는 김이강 서구청장의 신념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약 50km(31마일) 떨어진 산업단지 내 제약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후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고 있다. 이 불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서석대



토사구팽(虎死狗烹).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다며 삶아 먹는다는 이 고사성어는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강한 울림을 준다. 춘추전국시대 월나라 재상 범려는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 공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구천이 고난을 함께할 수 있어도 영광은 함께할 수 없는 인물이라 판단해 스스로 나라를 떠났다. 이후 범려가 문종에게 '비조진 양궁장 교토사 주구팽(飛鳥盡 良弓藏 狡兔死 走狗烹; 새 사냥이 끝나면 좋은 활도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탈출을 권유했다. 끝내 남은 문종은 범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했다.

역사에만 머무는 얘기가 아니다. 조선 건국의 일등공신 이방원조차도 정묘전·남은을 제거했고,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명장 한신을 반역죄로 몰아 죽였다. 일단 필요할 땐 앞세우고, 목적이 달성되면 의심하거나 버리는 구조는 권력의 민낯이자 인간의 민낯이다.

최근 프로축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광주 금호고 출신의 프랜차이즈 스타 기성용 선수가 FC서울을 떠

나 포항 스틸러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 기 선수는 2006년 서울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해, 유럽 무대를 거친 뒤에도 팀을 위해 돌아온 인물이다. 10년간 같은 팀 유니폼을 입었던 레전드다. 하지만 이제는 '전력 외'로 분류됐고, 은퇴권유까지 받았다. 선수로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자 이적을 택했지만, 남겨진 팬들의 감정은 참담하다. "예우가 부족하다", "이게 대접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기성용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노쇠하면 버려지는 구조는 기업과 조직, 정치판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성과'만을 기준으로 모든 관계가 판단되는 냉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 헌신의 무게,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적 가치까지도 함께 지워도 되는 걸까.

사람은 도구가 아니다. 쓸모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신뢰를 잃고 서로를 불신하는 관계로 치닫는다. 범려가 미리 자리를 떠난 지혜, 문종이 끝내 죽음을 맞이한 비극, 그리고 기성용이 택한 선택을 되짚으며, 한 사람의 역할과 기여를 끝까지 기억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낀다.

최동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